

[새 사상 새 로정 인술]

강국의 기반을 다지는 중국제조



산서 태원강철그룹유한회사 스테인리스강 (不锈钢) 정밀박판유한회사 작업현장 일각

/ 신화넷

습근평 총서기는 제조업은 국민경제의 중요한 기둥이라고 밝히며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려면 반드시 제조업의 합리적인 비중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 제조업은 과학기술 지원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바 기술난관을 힘써 극복하고 자주적 혁신의 발전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올 상반기 우리 나라 제조업은 핵심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돌파를 이루고 전통산업 혁신이 가속화되었으며 신산업, 신업태가 줄기차게 성장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끄는 엔진 역할이 갈수록 강화되었다.

얼마전 태원강철그룹은 세계에서 가장 얇은 ‘강철’ 개발 과정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었다.

올해 들어 우리 나라 제조업 분야의 혁신 성과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몽주 (梦舟) 유인우주선이 관

련 시험, 선진적인 아초 (阿秒) 레이 다 시설 착공, AES100 항공발동기 개발 등을 비롯한 핵심기술 분야에서 연속적으로 돌파를 이루었다. 최신 수치에 따르면 상반기 우리 나라 규모이상 첨단기술제조업의 증가액은 9.5% 증가하고 GDP에서 차지하는 연구개발 투입 비중은 2.7%에 접근했다.

제조업은 국가의 근본이며 강국의 기반이다. 습근평 총서기는 제조업 발전을 깊이 중시하고 있다. 올 상반기 총서기는 생산 및 연구개발 현장을 여러차례 찾아 기술과 혁신 상황을 살펴보았다. 료녕성 본계강철그룹에서 펑간 압연 공정 (冷轧工序) 과 혁신 상황을 살펴본 총서기는 제조업은 고급화, 지능화, 친환경화 방향을 견지하고 제품의 과학기술 함량과 부가가치를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남성 락양의 스포츠공장에서 총서기는 제조업은 국민경제의 중요한 기둥으로서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조업의 적정 비중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얼마전 산서 양천의 생산작업장에서 제조업체의 발전 상황을 시찰한 총서기는 우리 나라의 공업 발전은 과거에는 망치를 두드리며 걸어온 시절이 있었다면 이제는 첨단 기술과 장비로 수준을 높여야 할 때라고 재차 강조했다.

올 들어 국가의 ‘대규모 설비 갱신 및 소비재 보강교환판매’ 정책이 지속적으로 심화됨에 따라 중점 분야에서 제조업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현대화 산업체계 구축을 위해 신홍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고 미래산업 혁신 과제를 추진하며 종합적인

정책을 통해 제조업의 전환과 고도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사전성 의빈시는 혁신실험실을 통해 신산업 기반을 다지고 첨단설비 도입으로 전통산업을 업그레이드하였다. 올 상반기 경제성장에 대한 이곳 제조업의 기여도는 50%를 넘어섰다.

단일돌파에서 군집발전에 이르기까지 올 상반기 우리 나라 제조업은 뛰어난 탄력성과 성장 동력을 과시했다. 호남성 주주시에서는 전기기관차 1대 생산에 필요한 수만개 부품을 15분 만에 조달할 수 있는 효율적인 공급망을 구축했다. 장강삼각주지역에서는 신에너지 자동차 1대의 설계부터 생산까지 4시간이라는 혁신적인 속도를 실현했다. 현재 우리 나라는 이미 이런 국가급 첨단제조업 집중구를 80개 구축하여 중점 산업계를 전면적으로 확장시켰다.

올 상반기 우리 나라 제조업의 경제주도적 역할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다. 장비 제조업의 증가액은 동기 대비 10.2% 성장하고 성장 속도는 전체 규모이상 공업보다 3.8% 포인트 빨랐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5월 말까지 전국 장비 제조업체수가 246만개에 달하고 올해 신규 설립 기업중 중고급 장비 제조업의 비중이 60%를 돌파함으로써 산업 고도화 추세가 가속화되었다.

다음 단계에 국가는 제조업 중점산업망의 고품질 발전에 속도를 가하고 설비 갱신과 기술 개조 투자를 확대하도록 기업을 독려할 방침이다. 그리고 인공지능, 신에너지, 생물의약 등 분야의 배치를 가속화하고 신질생산력을 육성, 강화하며 첨단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현대화산업체계를 신속히 구축하여 경제의 고품질 성장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 중국조선어방송넷

이재명 관련 5개 형사재판 모두 연기

7월 22일, 한국 수원지방법원은 한국 대통령 이재명의 대조선 송금 사건 재판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이재명이 기소된 5개 형사재판 절차가 모두 중단됐다.

수원지법은 이날 이재명과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 전 쌍방울그룹 회장 김성태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및 뇌물공여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중이고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운영의 계속성을 위해 기일을 추정 (추후 지정)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은 경기도지사를 맡았던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이화영과 함께 김성태에게 경기도가 조선측에 지급해야 할 스포츠 사업비 500만달러와 도지사의 조선 방문비 300만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 등으로 2024년 6월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됐다.

이재명은 검찰에 제출한 서면 진술에서 경기도정부를 대신해 조선에 송금하라고 요구한 것은 자신의 정치생명은 물론 개인생활까지 파괴할 만큼 중대한 범죄이자 반국가적 행위라며 본인과 경기도정부가 이처럼 아무런 리드도 없는 범죄를 저지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이 대통령 당선 이전에 기소돼 재판중인 사건은 총 5건이다.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6월 9일자 추정), 대장동 사건 (6월 10일자 추정), 경기도 법원카드 류용 의혹 (7월 1일) 등 3개 재판은 대선 이후 해당 재판부가 기일을 추후로 지정하기로 하면서 중단됐고 위증교사 사건 2심은 대선전인 지난 5월 12일 추정된 이후 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다. / 국제방송

한국 화성 배터리공장 대표 징역 20년 구형

화재사고로 중국인 17명 희생

7월 23일,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한국 화성아리셀배터리공장 대표 박순관씨가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2024년 6월 24일, 한국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아리셀배터리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23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이중 17명이 중국 국적이었다.

사고조사단이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배터리공장은 품질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제품을 바꿔치기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해왔고 생산과정에서 조약해 불량 배터리 제품이 발화하면서 대형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 국제방송

로씨야 사고 려객기에 중국 공민 1명 탑승



기내 승객 전원 사망 확인

하바롭스크 주재 중국총영사관의 소식에 따르면 7월 24일 로씨야 극동지역 아무르주 텐다시 교외에서 추락한 려객기에 중국 공민 1명이 탑승했다. 현재 이 중국 공민에 대한 개인정보는 아직 없다.

로씨야 구조 당국과 언론에 따르면 로씨야 앙가라항공사가 운영하는 앙-24 려객기가 24일 텐다시

교외에서 추락했다. 파스통신은 24일 로씨야 구조 당국의 소식을 인용해 초기 조사 결과 착륙 당시 가시도가 낮았고 승무원의 조작 실수가 려객기 추락의 원인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로씨야정보통신사는 로씨야 수사위원회의 소식을 인용해 추락한 앙-24 려객기에 탑승한 승객 43명과 승무원 6명이 모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 신화넷

유네스코 : 미국의 탈퇴 결정은 ‘다자주의의 기본원칙 위배’

7월 22일,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유네스코) 사무총장 아줄레이는 미국의 해당 기구 탈퇴 결정에 관해 성명을 발표, 미국측의 결정은 “다자주의의 기본원칙에 위배된다.”고 표했다.

아줄레이는 성명에서 “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미국의 유네스코 탈퇴를 결정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 결정은 다자주의의 기본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아줄레이는 이 소식이 유감스럽기는 하나 예상했던 일로서 유네스코는 이에 대해 준비하고 있었다면서 “최근년간 우리는 중대한 구조적 개혁을 진행해왔고 자금 원천의 다원화를 실현했다. 2018년 이후 본 조직의 노력 덕분에 미국 재정 기여도 감소의 영향은 이미 상쇄되었다.”고 밝혔다.

22일, 미국 국무원 대변인 태미 브루스는 미국이 유네스코에서 탈퇴할



7월 22일, 프랑스 파리에서 찍은 유네스코 본부.

/ 신화넷

것이라고 선포했다. 미국이 해당 기구에서의 탈퇴를 선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다. 성명에 따르면 미국의 이번 탈퇴는 2026년 12월말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이날 브루스가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미국이 탈퇴 결정을 내린 이유는 “유네스코가 분열적인 사회적, 문화

적 사업을 추진하고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지나치게 관심하여 미국 우선의 외교정책과는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미국은 유네스코에서 두 차례 탈퇴한 적이 있다. 1984년 미국은 유네스코가 부패와 관리혼란 등 문제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해당 조직에서 탈퇴하겠다고 선포했다가 2003년 다시 가입했다. 2017년 10월 미국은 또다시 유네스코 탈퇴를 결정했다. 2023년 미국은 재차 해당 기구에 복귀했다.

23일, 외교부 대변인 객가곤은 유네스코의 목적은 교육, 과학, 문화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 문명의 상호 이해와 융합을 증진하고 세계 평화를 유지함으로써 공동 발전을 실현하는 것이라면서 중국은 줄곧 유네스코의 활동을 확고히 지지해왔다고 밝혔다. / 신화넷

